

# Continuum

강이연 Kang Yiyun

주체와 사건들이 작용하고 반작용하며 진보하듯, 때로는 퇴보하듯이 역사는 되풀이 하며 나아간다. 1973년 영국의 EU 가입부터 2019년 혼돈의 Brexit 과정까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에서 2018년 노란 조끼 혁명까지, 1919년 3.1운동에서부터 2016년 광화문 촛불집회까지, 역사는 action/counteraction, narrative/counter-narrative, reflection, reaction 들의 뒤얽힘이다. *Continuum* 은 이 역사의 흐름에 현재 computation 이 미친 영향을 관찰하고, 이 맥락에서 불변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질문한다.

John Ruskin 의 'The Storm-Cloud of the Nineteenth Century' 강연 (1884)에서 현재 디지털 맥락과 이어지는 흥미로운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늘을 집요하게 관찰한 Ruskin 은 이 일련의 강의를 통해서 영국과 유럽 대륙 지역에 새로이 나타난 'plague-wind'가 'storm-cloud'라는 이전에 볼 수 없던 구름을 영국에 드리우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 짙고 어두운 구름이 그에게 부정적 의미를 지닌 이유는, 이것이 '빛'을 가리기 때문이었다 (Ruskin, 1884). 신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Fiat Lux)'로 명함으로써 '세상을 창조 (Fiat Anima)'하였고, 진보주의자였던 Ruskin 에게 '빛'은 즉, 도덕성을 지닌 대상이며 인간 지성 발전의 메타포였다. James Bridle 은 이 메타포를 현재의 디지털 기술에 연결한다. 모든 컴퓨터 네트워크와 시스템은 '빛-광케이블'을 통해 구축되며, 따라서, 컴퓨터는 정보를 처리하는 매개체로 빛을 사용하도록 고안된 장치라는 것이다. 즉, Ruskin 이 말한 지식의 매개체로서의 빛이 컴퓨터 네트워크로 구현된 것이다. (Bridle, 2018). 이로써 현재 우리는 computation 과 네트워크로 구축된 code/space (Kitchin, Dodge, 2011) 안에 살게 되었고, 알고리즘에 의해 컴퓨터가 처리하는 데이터에 광범위하게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는 computation 으로 인해 이전의 과오를 '덜' 범하게 되었는가? 과연 우리는 컴퓨터로 인해 더 현명해지고, 더 주체적이 되었는가? 디지털 클라우드는 Ruskin 의 우려대로, 오히려 빛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GPS 부터, Facebook, Instagram 같은 SNS 플랫폼, 그리고 Amazon, Netflix, YouTube 상의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제공해주는 결정들에 따라 움직이고, 문화를 소비하고, 선호도를 표하고, 의견을 댄다. 지식과 문화조차 하나의 code/space 가 되어가고 있으며, 우리는 computation 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자각조차 하지 못한 채로 주체적 판단력과 결정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Bridle 이 우려하듯, computation 은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까다로운 문제들을 추상화해 버리고, 이로 인해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에 대한 질문보다는, 컴퓨터의 기계적 본질인 분절적이고 수학적인 계산을 처리하는 데 몰두하도록 우리를 마비시키고 있다 (Bridle, 2018). 뿐만 아니라 우리는 VR, MR, AR 등 다른 차원에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며 더더욱 신체를 벗어나고픈 욕구를 키울 것이고 (Escapist need), 컴퓨터는 그것을 충족시켜줄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듯이, 이같은 초월적인 (transcendental) 경험, 새로운 형태의 감각과 인지는 결국 우리의 신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더더욱 역사 과정의 주체로서의 사람의 역할은 중요해 진다.

본인의 작업을 담아내는 프로젝션 또한 인공적인 '빛' 이다. 그러나 이것은 Ruskin 의 진보하는 개념적인 빛이나, 오류없이 완벽하게 멈추지 않고 작동해야 해야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광케이블과는 다르다. 프로젝션의 빛은 덧없다. 이 빛은 관객이 바라보는 동안 그 특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현전하며, 그 이후에 존재를 감출 것이다. *Continuum* 작업에서 공간에 투사되는 영상물들은 바닥에 설치된 거울을 통해 반사되어 시공간의 겹을 추가한다. 이는 작용, 반작용, 교차하며 이어지는 역사를 뜻한다. 영상은 hybrid moving-image (Kim, 2016)로서 컴퓨터로 렌더링한 영상들과 4K 로 촬영한 실제 퍼포머들의 섬세한 신체 이미지들이 섞인, 디지털, 실재, 추상적, 구상적 이미지가 모두 담긴 혼종물이 될 것이다. 영상물의 한 부분에서 디지털 파티클들은 본인이 한국의 사찰에서 녹음한 법고 소리에 반응하여 일렁인다. 법고를 칠 때는 마음 심(心) 자를 그리며 두드린다 한다. Computation 으로 구축된 code/space 안에서 주체성이 결여된 영겁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의 깨달음이 중요함을 뜻한다.

*Continuum* 은 더 이상 선형적 시간성 (linear temporality) 만으로 해석될 수 없는, 끊임없이 시공간을 확장하며 나아가는 현시대 역사의 흐름 안에서, 그 어떤 때 보다는 중요한 것은 시스템 (hidden structure)에 매몰되지 않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불멸하는 것은 역사를 엮어가는 우리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John Ruskin, *The Storm-Cloud of the Nineteenth Century: Two Lectures Delivered at the London Institution February 4<sup>th</sup> and 11<sup>th</sup>, 1884*, (London: George Allen), 1884.
- James Bridle, *New Dark Age: Technology and the End of the Future*, (London: Verso Books), 2018.
- Rob Kitchin and Martin Dodge, *Code/Space: Software and Everyday Life (Software Studies)*, (Cambridge: MIT Press), 2014.
- Jihoon Kim, *Between Film, Video and the Digital: Hybrid Moving Images in the Post-media Age*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16.